

여수~김포 하늘 길 넓히다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노선 취항식

오는 22일부터 매일 1회 정기편 운항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지난 9일 여수공항에서 여수~김포 신규 노선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 여수~김포 노선 신설은 1992년 아시아나항공 취항 이후 28년 만이다.

이날 취항식에는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서은수 여수시 부시

장,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이에어는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부정기편으로 매일 1회 여수~김포를 왕복 운항 후 22일부터 정기편 운항을 할 계획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영광군, 국고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

보성군, 농장단위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으로 안전지대 만든다

30억 원 투입된 중기 계획

청정 축산 보성군이 농장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안전지역 만들기에 나섰다.

보성군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억여 원을 투입하여 축산시설과 축산농가 500여 개소 농장 입구에 축산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50여 개소에 차량 소독기 설치를 지원하고, 2021년부터 사업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성군은 2019년에도 가축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 처리 및 퇴비 생산 시설까지 총 50여 개소에 차량 소독 시설을 지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예방만이 최선”이라며 “농장

김포공항에서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해 여수공항에 오후 4시에 도착하고, 다시 여수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 김포공항에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한다.

22일부터 운항 예정인 정기편도 같은 시간대로 운항할 예정이다.

하이에어는 여수~김포 노선 취항 이후 탑승률을 살펴본 뒤 여수~울산, 울산~제주, 여수~제주 등으로 노선 확대도 검토 중이다.

윤형관 하이에어 대표이사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함께 광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는 항공 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은수 여수시 부시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항공수요에도 불구하고 김포노선이 감축되어 고민이 깊었다”면서 “하이에어 여수~김포 노선 취항으로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여수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나주시, 호남 최초 지역학 연구진흥 조례 제정

올해 나주학진흥위원회 출범·유물수집 위한 전문 인력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역사 를 비롯한 문화·경제·산업 분야를 종망라한 나주학 연구에 본격 착수,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 8일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 호남지역 기초자체 중 최초로 지역학 연구·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학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산에 대해 종합·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치능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로 광역단위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도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서 기초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나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나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나주학 연구’를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나주학 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책포럼과 학술대회, 연구용역, 기록유산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주학 연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나주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나주학 진흥위원회’를 출범, 연구용역, 학술연구,

정책포럼, 시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1월말부터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체가 되는 유물 수집·연구에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 나주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분석하여 다가을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사명감과 호남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자금심을 토대로 나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인권운동의 대부’ 고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완료

인권 옹호와 민주화 정신 기려…인권·민주 배움터로



화순군은 ‘인권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 사업을 지난해 12월 완

료했다고 밝혔다. 민주인사들이 기다려온 고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

해 5월 첫삽을 떴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들여 목조 초가 형태의 생기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고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이다.

그는 1963년 서울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광주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과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섰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

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